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60호

2025년 8월 3일(다해)

미사 안내	평 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주 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연중 제18주일

▶ 입당송 :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 1독서 : 코헬렛 1,2; 2,21-23 ▶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2독서 : 콜로새서 3,1-5.9-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 복음 : 루카 12,13-21
▶ 영성체송 :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① 8월 17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8월 17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⑤ 8월 봉성체 안내

8월 봉성체는 8월 21일(목, 오전)에 서쪽지역, 8월 22일(금, 오후)에 동쪽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⑥ 성체 강복 미사 안내

매달 첫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⑦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① 2026년 예비신자 모집(2026년 4월 5일 세례식-부활 대축일)
기간 : 2025년 6월 8일 - 8월 10일(오리엔테이션)
모든 신자가 적극 참여하시어 새신자를 찾아 복음화 카드에 기록 후 주일 미사 봉헌시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② ■ 故정장만 요셉 형제님께서 7월 8일 향년 97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미사 : 8월 5일(화) 10:30, 연도: 9:30
- ③ ■ 故김용진 루시아 자매님께서 7월 26일 향년 77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미사 : 8월 8일(금) 10:30, 연도: 9:30



구역 및 단체

- ① 성령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8월 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② 소공동체 장 모임 안내
일시: 8월 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③ 상임위원회 모임 안내
일시: 8월 10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④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8월 셋째주(토) 오후5:30
문의: 김민다 아가다 907 570 2034
- ⑤ 펠시티&아이에아 구역 모임안내
일시: 8월 3일(일) 오후 5:20
문의 : 송데레사 808 232 3733
- ⑥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8월 10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⑦ 쏘렉 구역 모임 안내
일시: 8월 12일(화) 오후 5:00
장소: 오하나센터 컨퍼런스 룸
문의: 이명노비오 808 227 5630

기타공지

※한글, 주일학교 여름 캠프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홍윤택 프란체스코, 김정남 글라라, 황히야친다, 김창옥 엘리샤, 김창완 말라키아, 김용태 요셉&클라우디아, 이옥희 모니카, 권곤임 안나, 이영숙 누갈다, 김옥숙 데레사, 김국현 고스마, 김진희 사비나, 정지운 비비안나, 송정선 데레사, 송은자 데레사, 김유진 아네스, 김성연 야고보, 심소영 크리스티나, 임영림 안나, 박영선 말따, 김정님 마리아, 강호철 바오로
※ 10월까지 날씨 관계로 제대꽃은 화분으로 대체합니다.



헌금

8월 2일/3일 Catholic Charities Hawaii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7월 26/27일 : \$6,686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14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특별헌금		
	\$3,380	\$3,270	-	\$36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 213-321-87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쥬에이스원글로벌 (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희년 특강 [제4강: 믿음과 희망의 아버지 아브라함]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믿음과 희망의 길을 가리키기 위해 위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 4,18).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라는 이 개념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무나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주실 “불가능한” 아들을 희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의 신앙은 겉보기에 비합리적인 희망으로 열렸습니다. 이는 인간적 추론, 세상의 지혜와 신중함,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것을 믿는 능력입니다. 희망이라는 ‘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낙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심을 잃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주님께 불평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창세 15,2-6). 주님의 약속이 지연될때, 아브라함은 혼자라고 느끼고, 늙고 지쳤으며,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불평은 이미 신앙의 한 형태이며, 기도입니다. 신앙은 단지 반박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침묵만이 아니며, 신앙은 또한 하느님께 “경건한” 가식 없이 우리의 쓰마음을 그분께 보여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을 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계속 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표징은 계속 믿고 희망하라는 요청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걸어야 할 신앙이며, 희망의 여정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느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영상: youtube 병근병근신부 희년특강



알아두시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터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우세영 알렉시오

성인명	우세영 알렉시오 (禹世英 Alexis)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845-1866년

성 우세영 알렉시오(禹世英, Alexius)는 세필(世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황해도 서흥(瑞興)의 향교골에서 대대로 선비 생활을 하던 부유한 양반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그는 18세가 되던 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알게 된 김기호 요한(金起浩, Joannes)이라는 전교회장을 통해 천주교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어 천주교에 입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을 외면한 채 세례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는 몇몇 예비신자와 함께 서울로 상경해 성 베르뇌 시메온(Berneux Simeon, 張) 주교를 찾아갔다. 그와 함께 온 이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성 우세영을 만나본 성 베르뇌 시메온 주교는 그의 학식과 신앙과 열성은 대견스러우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의 반대 등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려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선뜻 세례를 주지 않았다. 성 베르뇌 시메온 주교는 그를 성 정의배 마르코(丁義培, Marcus) 회장에게 보내 눈여겨 살펴보도록 했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그의 진심에 대한 성 정의배 회장의 증언을 듣고 다른 동료들보다 한 주 정도 늦게 알렉시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1863년).

세례를 받고 즉시 집으로 돌아온 성 우세영 알렉시오는 천주교를 반대하는 부모와 가족에게 먼저 전교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천대가 극심할 뿐 아니라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저주와 악담까지 참아 받아야만 했다. 가족들은 이웃의 구설에 오르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를 감금하기까지 했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온유함과 인내로써 잘 이겨냈다. 그 후 그는 “차라리 네가 집에 없으면 죽은 것으로 여겨 위안이 될지 모른다.”라는 부친의 말을 듣

고, 집을 떠나 서울에 있는 성 정의배 마르코 회장 집으로 가서 만 1년 동안 머물며 묵상과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이때 그는 집안 식구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교리서 필사와 번역, 십이단 편찬 등에 전력하였다. 그러던 중 1866년 2월 16일 이웃 마을인 고둔리 공소회장 집에서 축일을 지내다가 성 유정을 베드로(劉正律, Petrus) 등 여러 신자와 함께 체포되어 평양 감영으로 끌려갔다. 첫 번째 심문은 잘 이겨냈지만 두 번째 심문에서 그만 혹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한다는 말을 하고 말았다. 석방되자마자 자신의 배교에 대해 깊이 뉘우친 그는 스승인 성 정의배 회장과 성 베르뇌 시메온 주교에게 사죄하고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갔다. 그러나 이미 성 정의배 회장이 체포되었음을 안 그는 회장 집을 지키던 포졸들에게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고 자수하여 체포되었다. 포도청으로 끌려간 그는 과거 배교한 사실을 알고 있는 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교를 강요당하며 심한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끝까지 열심한 신앙으로 이겨냈고, 옥중에 있는 성 베르뇌 시메온 주교에게 지난날 배교했던 일에 대한 사죄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평온한 마음을 되찾은 그는 용덕(勇德)을 발휘하여 모든 고문을 잘 참아 견디었고, 혹심한 곤장과 많은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용감하게 고수하여 기다리던 사형선고를 받았다.

성 우세영 알렉시오는 1968년 10월 6일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성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병인박해 순교자 24위’의 한 명으로 시복되었다. 그리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한국 순교성인’ 중 한 명으로 성인품에 올랐다. 2001년 개정 발행되어 2004년 일부 수정 및 추가한 “로마 순교록”은 3월 11일 목록에서 한국의 새남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친척들에게 열사당하고 순교한 교리교사 성 정의배 마르코와 성 우세영 알렉시오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의 축일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함께 경축하고 있다.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력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